



Market Index / 10일

코스피지수 ▼	2496.51 -13.55	코스닥지수 ▼	829.74 -6.11	유가(WTI, 달러) ▲	73.71 +0.55	환율(원)	1USD 100¥	살때 1348.18 996.33	팔때 1301.82 962.07	1EUR 1483.53	살때 1483.53 200.71	팔때 1425.65 181.61
---------	-------------------	---------	-----------------	---------------	----------------	-------	--------------	-------------------------	-------------------------	-----------------	-------------------------	-------------------------

비대면·워라벨 문화에 자영업종별 '명암'

국세청 최근 5년간 100대 생활밀접 업종 분석 결과
도내 사업자 수 35.1% 증가... 전국서 네번째로 높아
온라인 쇼핑몰 급증에 피부관리업·헬스클럽도 늘어

코로나19 이후 쇼핑문화가 비대면·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5년새 제주지역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여파로 문을 닫은 구내식당도 많았다.

10일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00대 생활밀접 업종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주지역 사업자 수는 5만5632명으로, 2018년 말보다 1만4439명(35.1%)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는 세종(62.7%), 경기(42.1%), 인천(37.8%)에 이어 네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 전문점이 988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판매업체가 4924개, 펜션·게스트하우스가 4291개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업 2303개, 커피음료점 2061개, 옷가게 1731개, 인테리어 등 실내장식가게 1722개, 미용실 1567개, 편의점 1317개, 과일가게 1114개, 피부관리점 1040개 등 순이었다.

증가한 업종 중에서는 통신판매업이 2018년 말 1706개에서 지난해 말 4924개로 188.6%로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온라인 쇼핑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오프라인 매장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옷

가게는 5.8%(1636개→1731개) 증가에 그쳤고 신발가게는 4.4%(113개→102개) 감소했다.

통신판매업 다음으로는 기술·직업훈련학원 157.1%(189개→486개), 실내스크린골프점 144.1%(68개→166개), 펜션·게스트하우스 128.6%(1877개→4291개), 주차장운영업 125.6%(39개→88개), 커피음료점 107.3%(994개→2061개)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헬스클럽 87.4%(103개→193개), 피부관리업 67.2%(622개→1040개), 스포츠시설운영업 19.0%(116개→138개)도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애완동물점 98.7%(79개→157개), 동물병원 25%(72개→90개)도 증가했다.

이외에 장난감가게 97.2%(36개→71개), 교습소공부방 82.8%

(454개→830개), 스포츠교육기관 82.6%(357개→652개), 사진촬영업 74.6%(311개→543개)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감소한 업종 중에서는 구내식당이 2018년 말 170개에서 지난해 말 146개로 14.1%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어 PC방이 14.0%(178개→153개) 감소해 뒤를 이었다. 특히 커피 선호 현상과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커피음료점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회식 문화 변화 등으로 간이주점이 12.5%(168개→147개), 호프전문점이 4.9%(589개→560개) 감소했다.

비혼 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예상장 9.1%(22개→20개) 감소한 반면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등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결혼상담소는 42.9%(21개→30개) 증가했다.

제주 오렌지 재배 농약 사용기준 마련

식약처·농진청, 농약 잔류허용·안전사용 기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과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9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오렌지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저장병(녹색곰팡이병, 푸른곰팡이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통상 감귤은 수확 후 10일 이내에 판매되지만, 오렌지는 후숙을 위해 수확 후 약 30여일 동안 저장 후 판매되는 과정에서 녹색곰팡이병 등 저장병이 발생한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이러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해 카벤다짐, 이미녹타딘, 프로클로라즈 등 3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 후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내 오렌지 생산량은 2021년 290t, 2022년 410t, 2022년 680t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주 17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 증가

4월 3만9000명... 전체 취업자 10명 중 1명꼴

제주에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비중이 점차 증가세로 취업자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일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고용의 질 개선으로는 이어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의 '4월 제주도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39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3%(5000명) 증가했다. 앞서 2월과 3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 1.0% 감소했던 데서 4월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중 주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 수는 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율보다 높았다. 전체 취업자에서 17시간 이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1년 전(9.4%)보다 소폭 높았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로 집계됐다.

최근 10년(4월 기준)동안 17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3년 5.9% ▷2014년 6.9% ▷2015년 7.0% ▷2016년 6.9% ▷2017년 6.4% ▷2018년 7.3% ▷2019년 7.9% ▷2020년 7.6%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021년 9.5%, 2022년 9.4%에서 올 4월까지 3년 연속 9%대로 취업자 10명 중 1명 꼴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기준 17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은 2021년 10.2%로 처음 10%를 웃돌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9.5%를 기록했다.

이처럼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 등이 비용 부담이 큰 상용직 대신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4월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업어업 5만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9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5.8%, 2.0% 감소했다. 나머지 산업에선 모두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구좌 주민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 '구좌로 모모장'

13일 질그랭이센터서 첫 개장

제주시 구좌읍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플리마켓이 개장된다.

세화리마을회와 세화마을협동조합은 오는 13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질그랭이센터 일대에서 플리마켓 '구좌로 모모장' (이하 '모모장')을 열고 10일 밝혔다.

'모모장'은 구좌읍 지역주민, 소상공인, 마을 모임·단체 등이 주축이 돼 기획 운영되는 마을 주민 주도형 마켓으로,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 플리마켓에는 셀러 40팀, 중고셀러 10팀 등 총 50팀이 참여하며, 제주의 특색이 가득한 다양한 수공예품부터 유용한 중고 물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제주 농수산물 및 지역 먹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모모장'은 지속가능한 삶



국제유가 하락에 제주 기름값 하락 국제유가 하락 등 여파로 제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제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656원을 기록, 전날보다 6.19원 하락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6.91원 내리인 리터당 1488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제주시의 한 주유소 모습. 이상국기자

과 장터를 추구하는 '친환경 마켓'을 지향함에 따라 상품 포장 최소화, 텀블러·에코백 사용 권장 등을 도입한다. 향후 마켓 이용 규칙에 친환경 실천 방침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친환경 마켓으로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상세한 정보는 모모장 공식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부터 형상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목을 알립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리조생 / 흥진 / 하갈 / 금갈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개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개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레몬 4년생,
- 제라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하갈(아마나스) 1~2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 1~4년생 ● 유리조생 1~2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오히라베니와세 1~2년생
- 히노야까리 4년생

※ 포트묘목

- 유리조생,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하갈, 천혜향, 오히라베니, 제라몬, 미니몬,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 리 조 생 2~3년생
천 혜 향 3~5년생
황 금 향 3~5년생
한 라 봉 엠 3~6년생
남 진 해 3~4년생
성 전 온 주 3년생
하 례 조 생 3년생
탐 라 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 평 3년생
진 지 향 3년생
탕 자 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탕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 생
유리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히라베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분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